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

무주군, 군민 1000여명 참여 시범사업 선정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 가져

무주군이 1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기본소득연대가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내외에 무주가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 각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구심체들과 주민 등 1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신재원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과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취지 설명을 듣고 결의 퍼포먼스 등에 동참하며 ‘기본소득 유치’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내용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해 군민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내용,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의 절박한 현실과 군민의 열망을 직



무주군이 1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하고 무주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그동안 무주는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 개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감수하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세월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왔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답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그저 한시적 지원책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고 경

제 활성화와 촉매제로서 무주의 미래를 바꿀 마중물이자 생명줄”이라며 “무엇보다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한 경제적 한계,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무주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며 “이 결의대회가 무주를 살리고 군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뜨거운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년농업인 완속토마토 첫 출하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성공적 첫 걸음

장수군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장수읍 두산리에 위치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완속토마토’ 첫 출하 소식을 전했다.

군은 지난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농업인 8팀 24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들은 지난 7월부터 시설에 입주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완속토마토’ 첫 출하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번 토마토 첫 출하는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입주 청년농업인 양쪽 모두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출하는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생산을 이뤄냈으며 출하 물량은 수도권을 넘어 대구, 순천 등지로



판로가 확대되고 있어 장수 농산물의 시장 다변화와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 농업인들은 청년주택에 입주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출하는 그간 준비가 결실로 이어진 첫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최훈식 군수는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장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 접수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제3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군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등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보는 진안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진행되며, 진안군의회 홈페이지 내 군민의 소리(부담행정 제보)에 올리거나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순동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군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 교육 실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1일 무주군민회관에서 군의회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강사를 초청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분석 기법 △예산심의를 위한 무주군 재정운용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를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오광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의원들이 충분한 지식과 분석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정례회 운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추석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진안군은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춘성 군수는 군과 1:1 결연을 맺은 가정을 비롯해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13개소를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위문품 전달도 함께했다.

전 군수는 관계시설을 방문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 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매년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위문하며,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 추석 연휴 24시간 운영

무주군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25명의 의료진이 3교대 근무를 할 예정으로 응급실 밖에는 환자 분류소를 별도로 운영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경우는 격리 진료를 통해 응급실 내 감염을 막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이송에 대비해 삼급의료기관과 권역의상센터 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주소방서, 무주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